한 눈에 쏙 들어오는

bodybasics

性에 관한 솔직담백한 옴니버스

episode1

<섹스북>*을 학관 앞에 펼치다

-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야외수업

성적 자기결정권 테스트, 콘돔 실습, 월경주기팔찌 만들기, 피임도구전시와 설명, 그림을 걸들인 전시물

4월 10일(화) 낮 학생회관 앞

*사회학자 권터 아벤트 박사의 유명한 성지침서

episode2

Say No! Act Out!

나의 몸과 나의 권리를 위한 호신술 배우기

강연자 - 정경애 선생님

4월 10일(화) 늦은 6시 학생회관 4층 제1학생회의실

episode3

안 배워도 다 알까? 몸, 피임, 섹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와 함께하는 성교육 워크샵

〈섹스, 젊은이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물, 다양한 성에 관한 문제들

-자위, 피임, 섹스, 순결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이야기,

에로틱 존 알아보기, 성적자기주장점검 등.

4월 11일 (수) 늦은 6시 종합관 301호

*episode1과 3은 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episode4

여성의 성, 그 현실과 환상 사이의 유쾌한 줄타기

영화 〈포르노그래픽 어페어〉와 함께하는 이야기판

4월 12일(목) 늦은 6시 제2인문관 B09

bodybasics

性에 관한 솔직담백한 옴니버스

별 수 있/다! 연세대학교 13대 총여학생회

총여 홈페이지의 여자만의 방

-우리들의 성을 이야기 한다.

'남자들은 자신의 성경험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닌다던데.
나는 격리된 화장실 칸 안에 푸그리고 앉아 몇 자 거우거우 쓰다가
누군가의 노크소리에 놀라고 만다.'

'친구들은 자신의 성 얘기를 먼저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는다.
나 역시도. 도대체 왜??'

'야한 상상은 나만하나?
도대체 나 이외의 다른 여자들은 어떤 성적환타지를 갖고 있는거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일상에 대해, 자신의 언어와 시각으로 표현하면서 남과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얘기할 이가 주변에 잘 보이지 않고 나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고요? 얘기를 꺼내는 것부터가 어색하다고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성적 영역을 구속하는 가부장적 시선이 여전히 껄끄럽다고요?

총여 홈페이지의 여성전용 익명게시판 '여자만의 방' 의 문을 두드리세요.

일상적 대화나 삶에서 여성의 성이 자유로와 지는 그날을 위해~!

별 수 있/다! 13대 연세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ysfem.or.kr

여학우들의 은밀한 이야기가 있는 '여자만의 방'

性에 관한 솔직담백한 옴니버스

별 수 있/다! 연세대학교 13대 총여학생회

글싣는 순서

性에 관한 솔직담백한 옴니버스

4 body basics—성에 관한 솔직담백한 옴니버스를 기획하면서

8 입뭐다 뭐 해!

10 episode1. 섹스북을 학관앞에 펼치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야외수업

11 '거울을 들고' 성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자

16 episode2. Say No! Act Out! -나의 몸, 나의 권리를 위한 호신술 배우기

17 나는 너를 오해해?!

23 episode3. 안 배워도 다 알까? 몸, 피임, 섹스...

24 즐겁게 안전하게

26 빼먹지 말자! 피임

34 여성의 성, 그 현실과 환상 사이의 유쾌한 줄타기 -영화 <포르노그래픽 어페어>와 함께하는 이야기판

36 episode4 포르노그래픽 어페어 한국판

38 솔직과 담백의 성이야기

잠깐 체크!

15 ready to sex

21 공부하자 성지식1

32 공부하자 성지식2

광고

여자만의 방으로 오세요

그곳에 가고싶다!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bodybasics"

性에 관한 솔직담백한 옴니버스"를 기획하면서

홍여학생회에서 이 행사를 왜, 어떻게
기획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쓰면 좋을까?
고민을 했다.
나는 내 얘기를 곁들여서 편안하게
쓰고 싶어졌다.

1학년 때 선배들에게 현재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운동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 때 나왔던 대답 중의 하나가 '反성폭력 운동'이었다. 한참 후에야 알게 됐지만, 대학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지는 올해로 벌써 햇수로는 10년이 되어가고 있고, 작년과 올해 많은 학교들이 반성폭력 학칙을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등의 상상도 못했던 성과까지 나타났다. 문과대에서 여성모임 '모반'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다른 학교 사람들이랑 행사를 치르고 참여하면서 '성폭력'은 빠지지 않는 주제였다.

무지, 금기

그런데, 나는 성폭력에 대해 깨닫기 전에 선배들에게서 배운 것들이 있었다. 처녀막은 '막'이 아니고, 자위를 해도 전혀 몸에 나쁘지 않고, 월경이 여자들의 몸에 좋은 점도 있다는 것, 뚱뚱해도 내 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온 성에 대한 교육은 오히려 많은 것들을 가리거나 왜곡하고 있었다는 점 등등등…… 그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과정은 신기한 자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나누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건 꼭 고등학교 때 성인용 비디오를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놀라워하고 침을 삼키고, 몇마디 감탄사만을 내뱉기만 하고 정작 구체적인 것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얘기를 해봤자 "저 배우들은 정말 그걸 하는 걸까?", "그렇대.", "아니래." 정도에 그치는. 우리는 서로 스스로가 왜 침을 삼키게 되는지, 얼굴이 빨개지는지 전혀 이야기해본 적 없이 각자 머릿속에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뇌까리고 있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모르고, 이야기하기 두려워하고 있다. 性이라는 것이 여전히 무언가 비밀스럽고, 더럽고,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설사 다들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떤 식으로 비춰질 것인가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과 환상이 현실적인 것인지, 내가 내 애인과 가지고 있는 관계가 올바른 것인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옷 살 때 민망해하면서 말하는 옷(몸) 싸이즈,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고 빼야할 살, 멋지게 가꿔야 하는 머리와 피부, 가끔 여기저기 아픈 것들. 이런 것들 말고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신경쓰고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때린다거나, 원한 적 없는데 팔을 잡는다거나 몸을 만져서 기분이 나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언어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가? 누군가랑 손을 잡는다거나 서로 꼬옥 안아주면서 기분이 좋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은 또 그러고 싶다는 것을, 그런 내 몸의 느낌을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해본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그 불편함과 즐거움을 다시 내 몸으로 표현해본 적이 있었던가? 내가 과연 내 몸의 주인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표현해본 적이 없는 우리들. '성'에 대한 이야기가 교실에서 본 몇 장의 그림과 머릿속에 떠도는 환상에 그쳐도 되는 비현실적인 문제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애인과의 사이에서 여전히 많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다.

-1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많은 일상적인 성폭력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 서로를(특히 여성과 남성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 나는 '이렇게 하면 얘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와 '너무 무섭고 당황했고 기분이 나빴다'의 사이에 바로 그 무지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물론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모르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그 기저에 깔린 권력도 존재한다.). 언제까지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스스로의 성과 몸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성폭력을 당하고 성폭력을 저질러야 하는 걸까.

또 언제까지 우리는 성과 자신의 몸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만을 취해야 하는 걸까.

이번에 우리가 기획한 「body basics」는 간단히 말하자면 '성교육' 행사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초점에 두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성적인 주체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의 몸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이다. 이제는 자궁에 작용하는 호르몬의 이름을 외우는 지겨운 성교육에서, '밤에 남편을 사로잡는 법' 같이 남성들을 즐거움만을 중심에 놓는 음지의 성교육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 몸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폭력의 두려움에 떨거나 낙태를 하게 될까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전전긍긍하지만은 않도록, 적어도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폭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일은 없도록 기본적인 지식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다는 것이 우리들의 작은 소망이다.

입 뒀다 뭐 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지만 예외가 있다.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은 아직까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눈빛 만으로 알 수 있다?

외국영화들을 보면 멋진 남녀가 만나서 서로 '눈빛', '필(feel)'이 통하고 함께 섹스를 하게되는 장면들을 많이 접한다. 이것이 과연 진짜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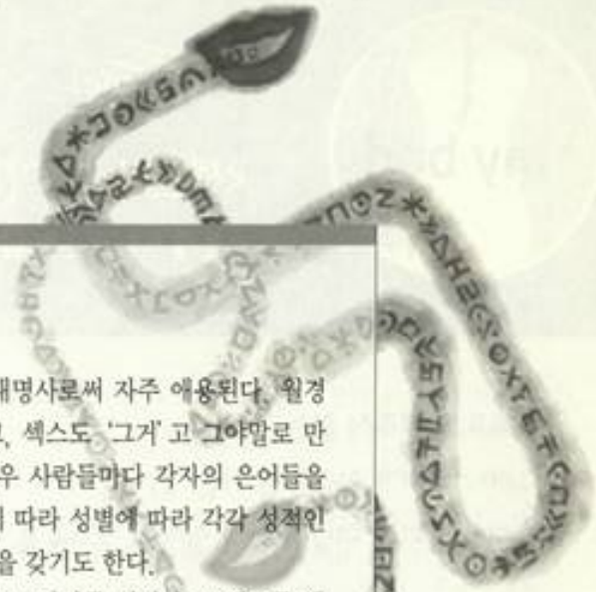
나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남자친구와 성적관계를 가질 때에도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똑똑이 표현해본 적이 없다. 장소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뀜에 따라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합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많았고, 그러한 경우 불쾌함을 느낀 적이 많았다. 내가 원한 것은 그게 아닌데, 거기까지는 싫었는데. 하며 나중에 후회를 하고 혼자 토라진 적이 많았다.

실상 많은 경우에 있어서 눈빛만으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는 어떤 섹스를 하고 싶은지, 어디까지를 내가 할 수 있는지, 나의 성감대는 어디인지, 섹스를 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평소 성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고 그것들을 상대방이 서로 배려할 때 기쁨 두배, 서로에게 즐거운 성이 가능할텐데.

'그거' ? 그게 뭔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자신의 성적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는데 능숙하지 못하고, 성적인 언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 그러한 성적인 언어를 대신하는 아주 유용한 단어가 있다.



'그거 또는 거시기'

이 말들은 성적인 언어의 대명사로써 자주 애용된다. 월경도 '그거'고, 성기도 '그거'고, 섹스도 '그거'고 그야말로 만능이다. 한편 그렇지 않은 경우 사람들마다 각자의 은어들을 갖게된다.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각각 성적인 언어를 대신하는 많은 은어들을 갖기도 한다.

왜 우리는 월경을 월경이라고, 성기를 성기라고, 섹스를 섹스라고 일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일까? 교과서적 말하기와 일상적 말하기의 괴리가 이렇게나 클까?

왠지 모르게 이러한 것들을 주위에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 역시 말하면 안될 것 같은 분위기. 그러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성적인 용어는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그럼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는 성을 몰래 해야하는, 숨겨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한편 성에 대한 오해와 기형적인 성문화의 발달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까?

'그거, 거시기' 라고 말하며 낯부끄러워할 필요없이 즐겁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신의 성에 대해 그리고 서로의 성에 대해 솔직해지고자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그리고 성을 자신의 즐거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만족스런 성을 즐기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몸이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말들을 찾아내고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my body

episode1

<섹스북>을 학관 앞에 펼치다

-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야외수업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대낮에 학관 앞에서 섹스북을 펼친다/

성적 자기 결정권 test 성적 의사 결정 능력이란 파트너와의 관계를 평등하게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는 것이 앞으로 이성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콘돔 실습과 피임 도구 전시 콘돔이 가장 안전한 피임법이란 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여성의 안전과 서로의 건강을 배려한 즐거운 섹스를 위해서는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른 피임법들에 대한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생리주기 팔찌란 월경의 시작일부터 다음달 월경 시작일까지의 순환 주기속에 있는 배란일과 가임 기간, 생리 예정일을 예쁜 색깔의 구슬로 꿰어 예쁜 팔찌로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생리 주기와 가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요.

4월 10일(화) 낮 학생회관 앞에서 펼쳐집니다.

'거울을 들고' 성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자

영화 '처녀들의 저녁 식사'를 본 사람 ~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봉한 당시에 여성들이 뽑은 best영화 2위, 그리고 동시에 worst 영화 2위에도 꼽혔었던 화제작이었죠.

전 그 영화에 등장했던 건조하면서도 사실적인 섹스신 (보통 영화에서의 섹스신은 느글느글한 색스폰 연주 음악과 함께 몽환적이고 에로틱하게 묘사되잖아요. ^^;) 이 인상적이기도 했지만 진희경이 욕실에서 성기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몸에 대해 탐구하는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녀는 자신의 성기와 온 몸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탐구하면서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스스로의 욕구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게 되죠.

여러분은 그렇게 거울에 여러분의 성기를 비춰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기를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진 않나요? 가장 은밀한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나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 성기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죠. 하지만 불편한 자세로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알 기회가 없었어요. 간혹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에 아무도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듯 두 다리를 활짝 벌리고 거울로 성기를 한번 관찰해 보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단지 여성의 성기는 연약해서 무언가에 의해 잘 싸여져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배워왔을 뿐이죠.

자신의 성기를 관찰해봄은 단지 그 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예요. 성기를 단지 재생산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몸의 일부이고, 또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신의 성적 욕망

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새로이 보게 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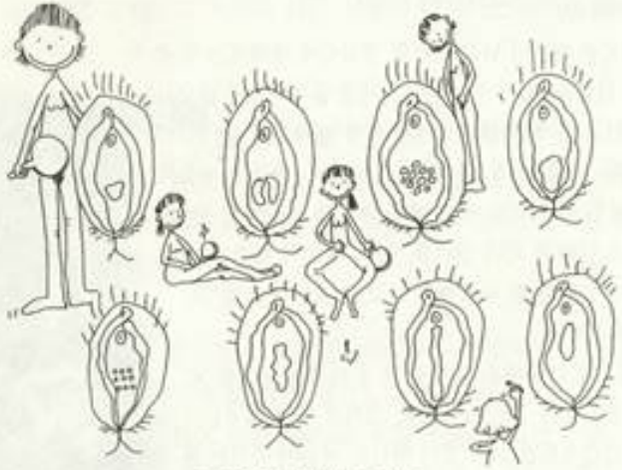
성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온 몸 구석구석이 모두 나름의 물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다들 동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그곳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관찰해보세요. 그곳은 생각보다 예쁘고, 또 건강한 색깔을 띠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변화들로 신호를 보내는지에 관심을 가질 준비가 되었나요? 그리고 그 신호들에 응답해 줄 준비가 되었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과 우리가 느끼는 성적인 욕구들에 관심을 기울여 보려고 해도 인식의 장애들과 왜곡된 정보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지 한번 볼까요?



처녀막의 여러가지 형태

@ 처녀막 콤플렉스

처녀막이란 질입구에 막의 형태가 아니라 질 입구에 있으면서 몸속으로 나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손가락이 통과 할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는 근육 조직이래요. 우리의 성기가 생긴 모양이 다르듯, 처녀막이 질 입구를 막고 있는 정도도 사람에 따라 아주 다양하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첫 성교시 출혈이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의 충격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많아서 첫 성교할 때 출혈이 되지 않을 수도 있구요.

그런데두 우리는 첫 성교시 처녀막 파열로 인한 출혈이 순결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무 우습지 않나요? 그런 인식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많은 여성들이 있고, 많은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가서 처녀막 재생 수술을 받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처녀막=순결' 이 도식을 과감히 깰 필요가 있다구요.

@ 크기 콤플렉스

스포츠 신문을 펼쳐보면 '음경 확대 수술', '강한 남성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광고 문구들 보이죠? 요즘 비뇨기과에서 남성 성기내에 실리콘이나 이물질을 넣어서 성기 크기를 늘리는 수술이 성황인데 그 이유는 남자들 중에는 자기 성기의 크기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그것은 여성의 오르가즘이 남성의 성기 크기와 큰 관련이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이예요. 사실 여성의 오르가즘은 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음핵에 의해서 도달되는 것이고, 또 여성의 질은 수축력도 좋아서 남성의 성기가 작다고 해도 만족스런 섹스를 즐길수 있는데 말이죠.

이런 '큰' 남성들에 대한 환상은 아마도 남성 성기에 대해 과장된 묘사를 하는 포르노 물 등에서 많이 유래되지 않았을까요?

거울을 들고

◎ 자위 행위

여성 보통 사람들은 여성들은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여성의 성욕을 간과한 거예요. 여성의 성욕도 남성의 그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말이죠.

50년대 미국에서 발표된 킨제이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여성들의 80% 가까이 자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자위는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즐기고 있는 자연스런 행위라고 할수 있어요. 여성들이 자위를 할때에는 남성들이 귀두를 자극하듯이 여성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음핵을 자극함으로써 쾌감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자위를 하고 있어서 정상이 아닐까봐 불안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당장 떨쳐버리도록 하자구요. 오히려 자기 몸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신에 대한 애정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남성 남성들은 90% 이상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남성들은 주로 귀두 부분을 문지르거나, 음경을 자극함으로써 쾌감을 얻죠. 사람들은 보통 성교 경험이 없는 남성들이 자위행위를 하고 성교를 시작함으로써 자위행위를 그만둔다고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과 무관하게 많은 남성들은 자위행위를 한다고 해요. 여성들도 마

◎ 성감대

일명 '에로틱 존'이라고 하지요. 자신의 몸 중에서 만지거나 자극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짜릿해지는 부분을 말해요. 보통 입술, 귀, 목, 성기 주위, 가슴 부분이 대표적이지만 역시 사람에 따라 성감대가 다를 수도 있죠. 발이나 등, 겨드랑이를 만졌을 때 짜릿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구요. 자위나 성행위를 할 때, 자신의 성감대가 어느 부분인지 알아둔다면 자신의 몸을 더 즐겁게 할 수 있겠죠?

ready to sex*?!

*섹스를 하기 전에 나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1. 나는 나의 생리주기를 알고 있다.
2. 나의 성기를 한번보고 싶거나 관찰한 경험이 있다.
3. 나의 성감대가 어딘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거나 어딘지 궁금하다
4. 나는 섹스하는 것을 상상하거나 그런 욕구를 느낀 적이 있다.
5. 나는 섹스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어디까지를 원하는지 알고 있다.
6. 콘돔이나 페미돔 등 피임도구 하나정도는 사용방법을 알고 있다
7. 섹스를 하는 사람과 피임에 대해 상의를 한다.
8. 만약 상대방은 원하지만 내가 섹스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지 그려본 적이 있다.
9. 상대방이 섹스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본 적이 있다
10. 섹스 이후의 서로의 감정이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본 적이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섹스는 단순히 삽입성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episode2

Say No! Act Out!

나의 몸과 나의 권리를 위한 호신술 배우기

어두운 밤길을 지나다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두려워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럴 땐 호루라기나 가스총이라도 가지고 있을걸 후회하거나
아님 갖고 있는 우산이라도 꽉 움켜쥐게 되죠.
아님 만원버스나 지하철에서 불쾌한 손길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럴 땐 뒤돌아보고 한 대 때려줬으면 싶죠.

하지만 상상만 한다고 언제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No라고 말해야지'하고 마음먹어도 막상 닥치면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No!'라고 당당히 말하는 훈련도,
몸을 쓰는 연습도 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훨씬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4월 10일(화) 늦은 6시 제1학생회의실에서 편한 복장으로 만나요.

나는 너를 오해해?!

몰라서 일어나는 성폭력,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제목을 들어보았는지, 화성인과 금성인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듯 남성과 여성도 서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가우뚱거릴 때가 많을 것이다. 양성간의 차이가 때론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오해가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분명 문제가 있다. 더 이상 '그게 폭력적인 줄 몰랐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자. 알고 난 후에는 분명히 일상의 다른 단면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항상 진실이라고 강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혹시 또 모르지 않는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폭력이라 느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잠시만 생각해 보자. 딱 3초면 된다.

여자의 NO는 YES다?

혹시 'No Means No'라는 구호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안돼요돼요돼요'하는 이야기가 먹히는 사회에서 'No Means No'는 너무나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힘주어 상기시켜야 하는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 싫다면 싫은 줄 알지, 괜시리 상대방의 생각까지 넘겨짚을 거 없다. 하나 더, 설마 여성이 Yes와 No밖에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흑백론자들이 계시진 않겠지. Yes와 No 사이에는 엄청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

Tip

다음과 같은 경우 여성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혹시 성추행범이 아닐까 하는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 만원버스나 지하철에서 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서 있을 때
- 좌석버스에서 다른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옆에 앉았을 때
- 만원 지하철 좌석에서 지나치게 다리를 벌리고 있을 때 (벌어진 다리 사이에 서야 하는...)
- 밤거리에서 아는 여성을 만났을 때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는 경우

래도 No가 정말 No인지 헷갈린다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여자친구가 뭘 원하는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

침묵이 동의인지 거부인지 헷갈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맘대로 넘겨짚지 않는 것. 일단 거부라고 생각하자.

너도 따라왔으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냐?

'손만 잡고 잘 거지?' vs '다 알면서 뭘 그래?'. 과연 누가 잘못 생각한 걸까? 물론 생각은 자유일지 모른다. 하지만 '손만 잡고 잘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단지 순진해 빠졌다고 측은해 하기만 것인가. 여관에 함께 가는 것과 성관계를 할 생각이 있다는 걸 같은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불쌍한 게 아닐까.

남자는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

이런 오해 때문에 성폭력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느니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강간을 유발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들이 나온다. 성폭력이 성충동에 의한 것이라면 우발적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폭력은 왜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날까. 한번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남성은 아무리 야한 옷을 입고 있어도 성폭력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여성은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말.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남성의 자제할 수 없는 성충동이라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성문화 각본의 일부일 뿐이다.

여자들은 남자가 약간 거칠게 스킨쉽을 시도하는 것을 남자답다고 느낀다?

'여덟 줄의 러브레터' 광고를 기억하시는지.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여자를 갑자기 껴안는 남자에게 여자가 감동하여 보내는 메시지는 '오늘 너에게서 남자를 느꼈어'이다. 물론 많은 여성들이 그 광고를 보면서 '나도 한번 그래봤으면'이라고 생각했을 지 모른다. 하지만 자기가 바로 여성들이 바라는 그 멋진 남자라고 마음대로 착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포옹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나을 걸.

이렇게 하면 덜 불안합니다.

- 밤길에 여성이 앞에서 가고 있을 때 30초-1분쯤 기다리거나 보폭을 줄여 천천히 갑시다.
-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손의 위치를 가급적이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둡시다.
- 밤늦은 시각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여성이 먼저 올라가도록 양보합시다.(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남성이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좌석버스에서는 가급적 남성은 여성 옆자리를 피하고 여성은 혼자 앉기보다는 다른 여성 옆자리에 앉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① 성적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No'는 분명히 'No'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② 성적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침묵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행동에 동의하는 것으로 혼동하지 맙시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존중합시다.

③ 성충동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취한 경우, 야한 옷차림을 한 경우, 성적 농담을 잘하는 경우라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④ 거칠고 공격적이며,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남성다운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인격체라면 폭력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거나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죠.

⑤ 강간의 실상과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아둡시다. 강간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과 고통을 알고나면 적어도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상대방이 하려고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하고 평소에도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보여줍시다. 성적인 행동에 대해 거절을 할 때에는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이나 약한 거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로는 거절하지만, 속으로는 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호의를 무시했다고 하여 화를 내더라도, 이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맙시다. 본인이 불쾌하다면, 그것은 이미 호의가 아닙니다.

③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거나 체력을 단련하여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합시다. 자신감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나치게 겁먹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④ 성폭력 발생 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합시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가해자를 더욱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⑤ 본인이 불안을 느낄 때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을 가도 됩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것보다 소란을 피우는 것이 낫겠죠.

⑥ 평소에(성관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특히 더)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 범위의 한계 등에 대해 분명한 마음을 결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⑦ 성관계를 갖겠다는 결정없이는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공부하자 성지식 1

bodybasics

우리 몸과 성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생물교과서에서 배우는 생식에 대한 부분은 성에 대한 많은 지식들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랍니다.

성에 대해 공부하는 것,

자신의 몸을 더욱 사랑하고 안전하게 성을 즐기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아래 문제들에 O,X로 답해보면서 함께 알아봅시다.

자료집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1. 초경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임신할 수 있다. ☐
2. 성기가 커야 성적 능력이 좋다. ☐
3. 발기 장애는 신체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다. ☐
4.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중의 성관계는 성폭력이 아니다. ☐
5. 처녀막은 첫 성관계시에 파열되어 출혈이 일어난다. ☐
6.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몸에 해롭다. ☐
7. 여자는 자위행위를 하지 않는다. ☐

body basics OX

O 1. 정답은 O. 월경은 배란이 일어나고 14일이 지나야 시작되므로 배란 전후에 성관계를 가진다면 임신할 수도 있습니다.

X 2. 정답은 X. 성기의 크기 때문에 고민하는 남성들이 많다고 하는데 근거없는 낭설일 뿐입니다. 발기된 성기의 크기는 서로 크게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질은 탄력이 뛰어나서 남성 성기의 크기와 성적 만족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답니다.

X 3. 정답은 X. 신체적 요인보다 정신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답니다. 파트너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자신의 성적 능력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역시 발기부전의 주원인이지요.

X 4. 정답은 X. 데이트 중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X 5. 정답은 X. 처녀막은 실제로 막의 형태가 아니라 질입구에서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근육조직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질 입구를 막고있는 정도가 다양해서 성교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전혀 출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녀막이라는 이름자체가 틀린 것이라 할 수 있지요.

X 6. 정답은 X. 자위행위는 전혀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좀 피곤하기는 하겠지요. 자위행위를 하면 키가 자라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근거 없는 것들입니다.

X 7. 정답은 X. 설마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여성과 남성의 성적 욕구는 그리 다르지 않으며 실제로 80% 가량의 여성들이 자위행위를 한다고 하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episode3

안 배워도 다 알까? 몸, 피임, 섹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와 함께하는 성교육 워크샵

–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할 수 있으리라

1. <섹스, 젊은이들을 위한 가이드> (스웨덴 애니메이션) 스웨덴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성교육 영상물이죠. 우리나라에선 대학생이 보기에도 약간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중학생이 본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괜찮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 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다양한 성에 관한 문제들 자위, 피임, 섹스, 순결이데올로기 등 – 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서로 토론해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3. 에로틱 존 알아보기, 성적자기주장점검 자신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에로틱 존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몸을 느껴보고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봐요. 그리고 성적자기주장점검을 통해 자기주장 훈련을 해봐요!

4월 11일(수) 늦은 6시 종합관 301호에서 만나요.

즐겁게! 안전하게!

1. 내가 무엇 때문에 섹스를 원하는지 점검해보기

당신이 섹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섹스에 응한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연인사이라면 으레 해야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섹스를 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상대방(특히 남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니까 사랑이란 이름 하에 응하는 것은 아닌가요? 별로 내키지 않으면서도... 보통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 섹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랑이란 미명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흐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섹스는 자신이 원할 때 - 정서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든, 상대방과 소통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든 혹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든, 여러가지 구체적 이유 하에 -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의 과정 끝에서 섹스를 할 것인지, 아닌지 점검해야겠죠.

2. 상대방의 의사 점검하기

나의 생각이 정리가 되었으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의사를 물어봐야겠죠. 이때 물론 술을 마셨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이거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라면, 이 상황에서의 의사표현은 그 진실성을 가늠할 수 없겠죠.

상대방과 동의를 하였으면 섹스의 구체적인 수준도 합의해 나가야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그럼 우

리는 이번에 이렇게 하자' 고, 그리고 섹스를 단순히 삽입이라는 성기중심적인 행위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에요. 서로를 꼭 껴안거나, 애무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느끼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흔한 포르노물에서 보이는 일방적이고 정형화된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도 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이겠죠.

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잡기 → 키스 → 애무 → 섹스(삽입성교) 라는 도식화된 단계에 생각이 매여져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이러한 각본은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더 나아가 폭력적으로 다가가는 결과를 낳죠. '어제는 애무를 하였으니 오늘은 삽입성교를 하는 날?'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어제 삽입성교를 했어도 오늘은 손만 잡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얘가 어제는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왜 이래?' 라는 폭력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섹스도 하나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하는 것이죠.

3.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즐겁고도 안전한 섹스를 위해서는 당연히 피임을 생각해야겠죠? 어떠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상대방과 결정하고 권유하세요. 만약에 상대방이 피임을 거부한다면 당연히 섹스를 거부해야죠! 섹스가 무슨 확률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미쳤냐구 따져요!

여성의 경우 괜히 피임 얘기를 꺼내면 무언가 정숙하지 못한 여자, 밝히는 여자로 찍힐까봐, (물론 남자도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잘 꺼내기 않지만) 얘기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험합니다. 피임은 꼭 챙겨야 합니다. 피임 없는 섹스를 하느니, 차라리 자위를 하는 게 더 낫겠죠^^

빼먹지 말자! 피임!

사회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정작 그것에 필요한 성지식은 성행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YMCA 상담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10대 남학생 네명중 세명은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임을 하는 아이들 중 과반수가 (피임방법이 아닌) '질외사정'을 피임방법으로 택한다고 답변했다. 과연 대학생들도 이런 통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물론 10대 남학생들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겠지만, 아직도 약국에서 피임도구와 피임약 등을 사려고 하면 눈치 보여 그냥 나오기 일쑤이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며 운에 맡기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피임을 성관계의 분위기를 깨는 걸림돌로 여겨서는 안 된다. 피임은 파트너 서로에 대한 배려로 양쪽이 모두 챙겨야 하는 필수상식이어야 한다. 이에 실질적인 피임정보들을 실어본다. 자신에게 맞는 안전한 피임법을 골라보자.

1. 콘돔

가장 일반적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남자가 성교시 느낌이 떨어진다는 이유로착용을 꺼리지만, 피임의 효과와 함께 성병의 위험도 막을 수 있습니다. 피임 실패율이10~15% 정도라고 하지만,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훈련한다

면, 그리고 자연주기법등의 다른 방법과 병행한다면 거의 99%의 피임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법과 주의사항

1. 우선 콘돔을 삽니다. (가까운 약국과 여관 로비, 편의점, 섹스샵, 공중 화장실 등)
2. 그리고 뜯습니다. 콘돔에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고, 착용시 반지나 뾰족한 손톱에 의해 구멍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 착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콘돔 끝에 있는 공기를 비틀어 뺍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성교 중 이 부분이 압력을 받게 되어 찢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공기 압력에 의해 정액이 콘돔 밖으로 새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3. 그리고 주의! 콘돔을 사정 직전에 착용해도 안전하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콘돔은 반드시 삽/입/전/에 착용해야 합니다. 사정 전에라도 성기가 발기하면서 쿠퍼씨관에서 수백마리의 정자가 있는 쿠퍼씨액이 나오기 때문이죠.
4. 사정 후에는 콘돔의 아래 부분을 손으로 쥔 상태에서 질로부터 빼내고, 이 때 정액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콘돔 사용법

2. 페미돔

페미돔은 여성의 질 내부를 감싸줌으로써 여성 스스로가 임신과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부드러운 폴리우레탄 재료로써 콘돔과 길이는 같지만 폭은 조금 넓습니다. 페미돔은 1회용으로 탐폰(질에 삽입하는 생리대)처럼 질 내부로 삽입할 수 있고, 콘돔처럼 남성의 발기가 필요하지 않아 성관계 전에 삽입하면 됩니다. 사용법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페미돔 사용법

3. 먹는 피임약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 성분을 가진 약으로 여성의 배란과 생리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용법은 매일 한 알씩 21일간 복용하고 7일간 휴약합니다. 먹는다고 곧바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빈번하게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 적합하고 피임 실패율이 적은 편(2-3%)이지만 매일 복용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복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합니다.

'성관계 직전에 피임약을 몇 알 먹으면 된다'는 얼토당토 않는 통념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됩니다. 피임약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구요~!

4. 살정제

살정제는 질 안에 삽입하는 좌약으로 정자를 죽임으로써 피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교 약 10분 내지 한시간 전에 삽입해야하고 약 30-40분간 효력이 있습니다. 살정제 사용은 피임 실패율이 10-20% 정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기엔 위험한 방법입니다.

흔히 피임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임법이라 할 수 없는 것들

● 사후피임약

사실 이 방법은 엄밀하게 피임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라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피임은 성교 전에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은 피임법이 아니고 응급피임법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더 낫겠네요.

조사에 따르면 10대와 20대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맨 처음엔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가 공공연한 피임의 방법으로 사용되면서 시판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사후피임약(응급 피임약)은 성교 후 72시간 내에 1회 복용하고 그 후 12시간 후 다시 1회 복용하여야 하는 방법으로써 피임률은 약 7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4명 중 1명 꼴은 응급피임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몸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임신 상태에서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방법은 응급 상황(콘돔이 찢어지는 등 불확실하게 피임을 했을 때, 혹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등)에서 쓰일 수 있는 처리 방법이지 절대 피임방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자연주기법 - 배란일의 추정

자연주기법이란 여성의 생리주기를 이용하여 임신이 가능한 시기, 즉 배란기에 성관계를 피함으로써 피임을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추정을 통한 시도일뿐이죠)

이 주기법은 생리주기가 정확한 여성에게만 가능한 방법으로 여성의 배란 후 난자가 살아 있는 1~2일과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내에 살아 있는 3~5일을 고려하여 배란을 전후로 한 임신 가능시기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임신가능 위험이 높은 기간은 지난 6개월간의 월경주기 중 가장 짧은 주기에서 18일을 뺀 날짜로부터 가장 긴주기에서 11일을 뺀 날짜까지이며, 예를들어 월경주기가 28~30일인 여성은 월경주기 10일부터 19일까지가 임신가능 위험이 높은 기간입니다.

자연주기법은 여성의 배란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방법이며,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란은 갑작스런 충격,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심리적 요인 때문에 불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자연주기법을 피임의 방법이라 할/수 없/겠/습/니/다. 콘돔등의 좀 더 안전한 피임법과 병행하여 사용할 때, 보다 안전한 피임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외사정

10대, 20대, 신혼부부등의 선호 피임(?)법. 피임방법이라기 보다 남성편의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심리적인 방어이지, 절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진 방법이 아님. 아마 임신이 안 된 거라면 그날은 '억세게 운좋게' 배란일을 피했거나 심각한 무정자증을 앓고 있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1번 콘돔에서 설명했듯이) 사정 전에 이미 쿠퍼씨액이(정자가 살고 있다) 나와서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극도의 긴장상태와 온갖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조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피임을 위해 꼭 명심해야 할 것들

→ 생리기간 중에는 섹스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 기간에도 임신이 가능하고 세균감염의 위험마저 있다. 생리기간에 자궁경부가 열려서 성기가 삽입되는 과정에서 자궁내부까지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

→ 피임은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피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삽입성교는 절대 노우!

→ 질외사정은 절대 피임이 아니다. 자연주기법도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 피임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야한다. 상대방의 일로 미뤄선 안 된다. 본인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권유해야한다.

→ 임신은 남의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편의적인 자가진단의 오류(난 무정자증이야, 난 불임이야..) 에 빠져서는 안된다.

→ 머릿속에 있는 피임정보로는 피임을 보장하지 못한다. 직접 구입하고 사용하는 연습을 하자. 실천이 중요!

공부하자 성지식 2

body basics

이번엔 주로 피임에 관한 지식들을 함께 배워볼까요?
아마 조금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역시 자료집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잘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피임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관계에서 피임을 실천하는 것, 피임을 실천하기 위해 파트너와 의사소통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 알고계시죠?

1. 성관계 전에 피임약을 먹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
2. 콘돔을 사용 후 깨끗이 씻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
3. 피임을 하면 임신을 100% 예방할 수 있다. ☐
4. 피임은 여성들이 하는 것이다. ☐
5. 월경기간 중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안 된다. ☐
6. 성관계 후 곧바로 씻으면 임신을 피할 수 있다. ☐
7. 단 한 번의 성관계로는 임신이 불가능하다. ☐
8. 질외사정을 하면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 ☐

body basics OX

X 1. 정답은 X. 먹는 피임약은 호르몬을 조절하여 배란을 막고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데 복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피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전에 피임약을 먹는다고 피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X 2. 정답은 X. 콘돔은 라텍스 고무로 만들어져 질기기는 하지만 손톱이나 반지 등에도 찢어지기 쉽고 작은 흠만 있어도 정액이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후에는 휴지에 잘싸서 버리도록 해야겠지요.

X 3. 정답은 X. 어떤 피임법도 임신을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피임법을 알아두고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 피임할 수 있는 방법은 금욕뿐이랍니다.

X 4. 정답은 X. 임신이 여성혼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듯 피임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또한 남성이 하는 피임이 여성이 하는 피임보다 훨씬 손쉽고 부작용도 적답니다.

X 5. 정답은 X. 강한 충격이나 쇼크를 받을 경우 급하게 배란이 일어날 수 있고 배란이 불규칙한 경우도 있으므로 월경기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답니다.

X 6. 정답은 X. 아무리 빨리 씻어도 정자가 자궁안으로 들어가는 시간보다 빨리 씻을 수는 없고 질 속 깊이까지 씻을 수도 없어 임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X 7. 정답은 X. 성관계 당시 여성이 배란기간이면 단 한번의 성관계라도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란 기간은 불규칙할 수도 있으며 정자가 여성의 몸 속에서 3일 정도 살 수 있으므로 배란전 3일간도 임신이 될 수 있습니다.

X 8. 정답은 X. 질외사정은 피임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자가 발기하게 되면 나오는 쿠퍼씨액에 이미 정자가 포함되어 있어 사정을 하지 않더라도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episode4

여성의 성 "그 현실과 환상 사이의 유쾌한 줄타기"

〈포르노그래픽 어페어〉와 함께 하는 이야기판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성적 환타지 실험

남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

인간적 교류로서의 성을 통한 사랑의 가능성 모색

4월 12일(목) 늦은 6시 제2인문관 B09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포르노그래픽 어페어" 소개

프랑스 영화, 99년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 공식상영작

만든 사람들

각본. 필립 브라스방

감독. 프레데릭 폰테인— "사회의 보편적인 관념과 맞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포르노라고 봅니다. 영화제목의 '포르노'라는 말은 단어 자체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 이외의 무언가를 감추고 있지요.

여자배우. 나탈리 베이— "판타지 없인 살 수 없겠죠. 영화 속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무엇인가를 그녀 스스로에게 제공한 거예요. 그게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남자배우. 세르지 로페즈— "우린 뭔가 꿈을 꾸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죠. 그런데 갑자기 코앞에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현실이 되버린 거죠.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여성의 성에 관한 '금기'를 깨고 과감히 자신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여성을 그리고 있는 이 영화는 철저히 익명의 관계로 섹스를 경험한 한 여자의 인터뷰에서 시작한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자신의 성적(性的)판타지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포르노잡지에 광고를 낸 여자주인공은 외모나 느낌이 자신의 취향에 제일 맞는 남자를 섹스파트너로 삼는다. '호텔안'에서 얻는 육체적 친근함과 상대방의 신상명세서에 신경 쓸 필요 없는 '호텔밖'의 편안한 대화가 맞물리면서 그녀는 그와 가까워지고 사생활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호텔방 안에서 그녀가 원하던 성적환타지의 실행을 통해(영화 속의 유일한 섹스장면이다) 두 사람 모두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심리적, 육체적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사랑의 감정과 성적(性的) 판타지를 향한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면서, 그녀는 또다시 현실의 제약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다.

마지막 날(목) 6시 인문2관 B09실에서 영화를 본 후 이야기판을 벌입니다.

포르노그래픽 어페어 한국판

-한국 촌년의 성적 판타지

by 썰

민우회에서 일하는 언니에게서 들은 얘기 하나.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민우회에 인터뷰를 하러 왔대. 그 기자는 남자였고, 이런 질문을 했다더군. "여자도 성욕이 있습니까?" 그 기자는 분명히 〈포르노그래픽 어페어〉를 안 봤을거야. 만약 그 기자가 〈포르노그래픽 어페어〉를 본다면 어떤 제목의 기사를 쓸까? 「프랑스 여성들의 性에 관한 충격고발 - 포르노그래픽 어페어」 뭐 이쯤 되지 않겠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니 민망하기까지 하군. 프랑스 여자건, 한국 여자건 간에 여자도 인간인 이상 성욕이 있지. 또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고. 난 성욕보다도 성적 판타지에 대해 얘기하는 게 더 재밌어. (물론 둘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범주이기는 하지만 그래두) 왜냐하면 성욕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성적 판타지는 개개인의 개성이거든. 나도 너도 성욕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나와 너의 성적 판타지는 달라.

나의 성적 판타지를 얘기해줄까? 미소년이 있어. 미소녀도 괜찮지만 미소년이 좀 더 좋아. 그 미소년은 말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이뻐야 돼. 키는 별로 상관없어. 몸매도 상관없어. 하지만 얼굴은...무조건 이뻐야 돼. 무조건! 나는 그 미소년을 살포시 안고(절대 안기는 거 아님. 내가 안아야 됨)...그 백옥같이 희고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볼에다...내 볼을...부비는거야...

아으으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

성적 판타지치고는 좀 시시하다고? 이해해줘. 작년 연말에 여러 잡다한 문제들(공부, 부모, 남자 등등등)로 스트레스에 시달린 이후 지금까지도 성욕이 저하된 상태거든. 그러니 얄따구리한 성적 판타지가 당최 떠올라야 말이지 뭐.

근데 말야, 이런 점도 생각해 줘. 내가 초울트라급으로 변태적이고, 웬만한 포르노 저리가라 할 정도로 해비한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고 쳐. 그걸 내가 글로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절대 못해~ 〈포르노그래픽 어페어〉의 그녀처럼 판타지를 판타지로서 간직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라면 낭만적이기나 하지. 내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야. 그렇다면 말야, 그걸 내가 실천에 옮길 수는 있을까? 고백하자면 이것도 별로 자신이 없어. 역시 두려움 때문이지. 찍히게 될 거라는 두려움. "재는 밝히는 년이야"...한술 더 떠서..."재는 걸레야"...운운운...

이 점이 프랑스 아줌마 그녀와 한국 촌년 나의 차이점이지. 이런 엿같은...-_-

그래도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나 자신이 성적인 인간이고 성적인 주체라는 사실을 말이지. '그녀'는 성과 사랑에 대해 주체적이며 적극적이었잖아. 자신의 결점을 솔직히 드러낼 줄 알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하고 인정할 줄 알았잖아. 그런 그녀가 너무 부러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려고 해.

있자나, 사실 내가 꿈꾸는 궁극적인 성적 판타지는 '모든 면에서 서로 100% 평등한 섹스'야. 100%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판타지지!

솔직과 담백의 성 이야기

대화방4321 /비번**** /대화참가자 총 2명 : 솔직, 담백

하나. 능동적인 성적 주체로서의 나

-여성의 80%가 자위를 한다!

솔. 궁금한 게 있는데. 넌 자신의 성적욕구를 언제부터 깨달았어?

담. 음.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꽤 어렸을 적부터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마구 두근거리고 몸이 달아올랐던 것 같아. 그땐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이라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솔. 헤헷. 나는 7살 때인가 길가에 붙여진 이한 영화 포스터를 보고도 흥분한 적이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자위도 초경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했었는 걸. 그때엔 잘 몰랐지만.

담. 그러고 보면 성욕도 식욕과 별다르지 않은 것 같네. 더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솔. 식욕을 충족시킬 때도. 될 수 있으면 좋아하는 음식을 찾고 이왕이면 좋아하는 사람과 멋진 식당에 가서 먹고 싶어진다는 점에서도 성욕과 식욕은 통하는 것 같아. 누구나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문화라 할 수 있지.

둘. 여성이 원하는 "포르노그래픽"

-여성이 즐길 수 있는 성문화 손들어보세요~

솔. 하긴 나도 중1때 남자애들이 학교에서 포르노 돌려보고 있으면, 언니랑 부모님 몰래 "원초적 본능"이나"연인"같은 야한 영화를 빌려 봤었다. 요새야 포르노도 가끔 볼 수 있지만.

담. 포르노는 어때? 나도 최근에 남자친구를 통해서 빌려서 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화가 나던데. 내 남친이 종종 본다는 생각하면 왠지 짜증도 나고. 차라리 여자가 안 나오더라도 남자커플이 주인공인 야오이[1]를 보는 게 더 좋아.

솔. 그래? 하지만 그것 말고는 마땅히 여자가 자신이 진정 바라는 성적환타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별로 없잖아. 여자인 내가 봐도 포르노나 성인대중물의 여자캐릭터들에겐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걸. 거기 나오는 남자들도 현실감이 떨어지고 전형적이잖아. 그렇다고 여자는 거의 그려지지 않는 야오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데...

담. 남자누드사진을 즐기는 사이버 커뮤니티도 있긴 하데. 남자 몸도 여성의 몸에 못지 않게 아름답잖니~^^

[1] 여성작가가 그리고 여성이 주로 소비하는 여성취향의 만화나 소설. 남자끼리의 성과 사랑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어 여성의 성문화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셋. 인간적 나눔의 하나로서의 "성"

– 영원한, 순간의 사랑은 있다.

담. 넌 그래도 지금 연애 중이라 좀 낫지 않아? @~@ 간접경험 좀 하지.

솔. 첨엔 그저 살을 맞대는 따스함이 서로를 더 애틋하게 여길 수 있게 된 듯해. 이성과의 성관계에 대해 무지한 나는 그런 정보가 많은 남친에게 끌려가는 식이었지만 새로운 쾌락에도 만족스러웠지. 하지만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다보니 좀. 예전보다는 즐겁지가 않아.

담. 니가 좀더 그 부분에 있어서 욕구뿐 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결국 성적 터치도 서로의 욕구나 성격을 알아가고 맞추어 나가면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기회잖아. 아직 나눌 것들이 많을지도 몰라.

솔. 으응. 사실은 말이야 내 나름대로 이 관계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남자친구와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서로의 몸에 대한 배려에 좀 소홀했던 것 같긴해. 분명히 그 아이도 더 바라는 게 있을 텐데. 근데 한가지 더 물어봐도 돼? 너, 성감대나 좋아하는 섹스방식은 따로 있니?

담. 물론 있지. 나는 말야....

솔. 엇 나랑 좀 다르다. 나는 있지...

-그건 포르노 행위였어요. 난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누구나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지만 항상 같은 것이기도 했어요. 그건 사랑의 행위였죠.-

영화 <포르노그래픽 어페어> 중에서

그곳에 가고 싶다!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20대 여성관객이 드는 영화는 뜬다는데...
정작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영화는 왜 없는걸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영화관을 찾으면서도 뭔가 허전하셨다구요?
그럼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를 가보심이 어떨지.
지구 곳곳에서 날아온 여성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시게 될 거예요.

1997년을 시작으로
어느새 서울여성영화제가 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여성영화제는 비경쟁 · 국제영화제이면서
일부 경쟁을 도입한 영화제로,
그 동안 격년으로 개최되면서
해외 여성영화인들의 작품들을 소개함과 더불어
국내에 많은 여성영화인력을 배출해 왔습니다.

2001년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과 하이퍼텍 나다에서
70여편의 세계여성감독들의 작품을 만나실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 포화속의 여성들, 프랑스특별전-아네스 바르다전,
대만현대여성감독전, 한국영화회고전, 여성영상공동체, 아시아단편경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울 여성영화제 사이트 www.wffis.or.kr 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연세중여신